

예산안 연내 처리, 철도파업 공권력 투입 변수로

야, 일제 유감 표명...예산안조정소위 공전 '농해수위 쌀값' '박근혜표 예산'도 걸림돌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지만 농해수위 예산안 처리 지연과 이른바 '박근혜표 예산'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철도파업에 따른 공권력 투입 등이 불발변수로 떠오르면서 예산안 연내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는 아직도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농해수위 예산안과 야당의

반발로 보류된 '박근혜표 예산' 등을 제외한 삭감 심사를 마무리한 데 이어 지난 22일부터 증액 심사를 시작할 방침이었다. 특히 여야는 전국 경로당에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장애인 급식비를 인상하는 쪽으로 불밀 협상을 마치고 그날 증액심사에서 통과시킬 계획이었다.

그러나 증액심사는 철도 노조 지도부 검거 작전 소식이 전해지면서 예정보다 2시간여 늦은 오후 4시께 시

작됐으나, 민주당 의원들이 경찰의 진압에 대해 일제히 유감을 표명하면서 1시간 만에 산회했다. 또 23일에도 국토위·환노위 등에서 긴급회의가 잡히면서 예산조정소위는 열리지 못했다. 예산안 연내 처리를 위해서는 하루가 급한 상황에서 예산조정소위가 이틀이나 공전한 것이다.

또 쌀 목표가격 인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3일 오전 열릴 예정된 농해수위 전체회의도 열리지 못하고 24일로 연기됐다. 문제는 농해수위가 열린다고 해도 새누리당이 쌀값에 대한 야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민주당의 반대로 예산안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여야는 양당 간사와 농식품부차관 등이 참여

하는 6인 협의체를 가동, 불밀 협상을 할 예정이지만 여야간 이견이 커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여야가 삭감 심사를 매듭짓지 못하고 보류한 120여개 사업들도 이번 주 초중반 하계 될 심사에서 논란이 될 소지가 크다. 우선 새마을운동, 창조경제, 정부3.0 등 '박근혜표 예산'이 대거 보류됐다. 민주당은 이들 사업의 중복 예산편성, 실효성 문제 등을 제기하며 삭감을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공약 이행을 위해 정부안대로 의결하자고 맞서고 있다.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논란과 연계된 사업들도 여야 이견이 크다. '우편량 안보교육' 의혹을 받아온 국가보

훈처에 대해서는 기본경비를 비롯해 11개 사업이 일괄 보류됐다. 또 야당이 사이버서랑부 예산을 삭감하자고 요구하면서 사이버예산(18억원)을 비롯해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예산 11억7000만원이 보류됐다. 국가정보원 활동비가 담긴 기획재정부 소관 예비비 5조3343억원의 심사도 난항이 예상된다.

예결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삭감된 규모가 1조2000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류 사업에 대해서도 야당이 추가 삭감을 요구하지 않겠느냐"면서 "그러나 상당수 국정과제 사업이거나 정보기관 관련 예산이어서 조율이 간단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전남도청 공무원노조 '베스트 도의원' 선정 강성희·송대수·양경수 3명

전남도청 공무원노동조합은 23일 자체 설문 조사를 통해 강성희(목포1), 송대수(여수2), 양경수(화순1) 의원 등 3명을 우수(베스트) 도의원으로 선정하고 노조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했다. 또 준수수의원으로 서육기(광양2), 이광일(여수1), 김탁(목포4)의원을 선정했다. 이 설문에는 899명이 참여했다.

이번 설문에서 강성희 의원은 입법활동 및 정책대안 제시, 연구 노력하는 자세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고, 송대수 의원은 전문성 우수, 책임감과 성실한 의정활동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양경수 의원은 농수산분야 전문성과 헌신, 연구하는 자세에 대해 호평받았다.

노조는 또 도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 우수(6.8%), 잘한다(929.7%), 보통(52.6%), 잘못(8.3%), 매우 잘못(2.3%)으로 나눠 설문한 결과 대체적으로 부정적이었다고 덧붙였다.

반면, 노조는 이번 설문을 통해 선정된 최약(위스트)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개입 우려, 개인 명예 등을 고려해 비공개하기로 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새 동지 든 '새정치' 회의. 무소속 안철수 의원측의 '새정치추진위원회'가 23일 여의도 국회 앞 신동해빌딩에 새 동지를 들고 본격적인 창당 준비에 들어갔다. 안 의원이 이날 입주 후 첫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호창 소통위원장, 윤장현, 박호근 공동위원장, 안 의원, 김효석, 이계안 공동위원장. /연합뉴스

고영을 이사장 광주교육감 출마 선언

고영을(56) 고구려대학교 이사장이 23일 내년 광주시교육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교육감 임지자는 10명으로 늘었다.

고 이사장은 이날 광주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실력 광주의 위상을 완성해볼까"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광주교육의 가장 큰 목표는 세계를 이끌어 갈 학생들을 길러내야 하는 것"이라며 "교육감은 시민들의 '실력광주'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교사가 마음껏 연구하고 학생과 교사는 학교에서 책임지고 교육청은 지원하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학생을 상대로 한 인성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정책방향을 밝혔다.

이를 위해 ▲화력임제 시스템 구축 ▲학교가 '갑'이 되는 행정 ▲'효'교육 토양 조성 ▲공·사립 학교 간 원활한 소통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전교조·비전교조 진영 후보간 단일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아직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 시민이 원한다면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 이사장은 전남여고와 전남대 사범대를 졸업했으며, 탕화에 조예가 깊어 수차례 개인전·초대전을 가졌다. 광주·전남에서 32년간 경교사로 재직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국정원 개혁특위, 개혁안 협상 착수

정보위 국내파트 예산 대폭 삭감...여야 합의의 도출 난항

국회 국가정보원개혁특위 여야 간사는 23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국정원 개혁안 합의의 도출을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

회의에는 새누리당 간사인 김재원 의원, 민주당 간사인 문병호 의원, 국정원 기조실장, 국회 정보위 수석전문위원 등이 참석해 국정원법 개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여야 간사는 가능하면 이날 합의안

작성을 마무리해 발표하고, 24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이를 의결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여야 입장차로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24일 오전까지 협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여야가 주요 쟁점마다 확연한 입장 차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국회 정보위원회를 상설 단독상임위로 만들고 국정원이 예산을 정보위에 보고할 때도 상세 내용

까지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지나친 통제다 국정원의 정보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사이버심리전과 정보기관에 대한 정보관(IO)의 상시출입제도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전면 폐지를, 새누리당은 일부 존치를 주장하며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 정보위원회는 이날 전

체회의에서 내년도 국가정보원 예산 가운데 2차장 산하인 국내 파트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다만, 국정원 예산 총액은 유지해 주고, 삭감된 국내 파트 예산은 대북정보(3차장)와 해외 산업스파이(1차장) 문제를 다루는 항목에 쓰도록 이관하는 것으로 정립했다.

정보위는 또 이날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3대 부대조건으로 ▲국정원 개혁특위에서 국정원법이 개정돼 조직 개편할 경우 예산안 조정 ▲의혹과 논란이 예상된 정책을 시행할 때 철저한 기획 준비 ▲재탈북과 이중탈북 등을 방지하기 위해 2015년부터 관련 예산 증액 등을 담았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요양급여 허위 청구 의원 광주 남구의회, 징계 결정

광주 남구의회가 요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했다가 적발된 의원에 대해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23일 남구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지난 19일 정례회에서 A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했다.

A 의원은 남구에서 요양원을 운영하며 사복복자사, 간호사, 요양보호사의 근무시간을 실제와 다르게 철저히 기록 완비 ▲재탈북과 이중탈북 등을 방지하기 위해 2015년부터 관련 예산 증액 등을 담았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송경중 시의회 부의장 출판기념회

이용섭·김동철 의원 등 3000명 참석...광산구청장 출마 시사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산구청장 출마의 뜻을 밝힌 송경중(민·광산 3·사진) 광주시의회 부의장의 '신 영산강 시대 비전' 출판기념회가 지난 21일 광산구 수완동 명진고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민주당 이용섭·김동철 의원과 조경태 최고위원, 고재유 전 광주시장 등 각계 인사 및 주민 3000여명이 참석했다. 이밖에 송영길 인천시장을 비롯한 신경민, 박지원, 이인영, 박영선 의원 등은 영상 축사를 통해 송 부의장의 출판기념회를 축하했다.

송 부의장은 '신 영산강 시대 비전'이란 책을 통해 '광산의 7대 비전'을 제시했다. 송 부의장이 제시한 7대 비전은 ▲교육 으뜸 도시 광산 ▲호남교통의 중심도시 광산 ▲광주의 생태 중심 도시 광산 ▲고품격 문화축제 도시 광산 ▲일자리가 넘치는 풍요로운 경제 도시 광산 ▲살맛나는 복지도시 광산 ▲생활체육 으뜸 도시 광산을 제시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위애드
02-2273-6646

「진심으로 국민만을 바라보고
진심으로 책임을 다하는
추미애의 진심정치 자서전」

**물러서지 않는
진심
추미애**

때론 가슴아리게 때론 눈시울 붉게
살아있는 사례를 통해 들려드립니다

이런 정치를 보고 싶었습니다!

마음속 수많은 길중에서
진심의 길만을 고집하며
그 길이 가장 험고 옳다는 것을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는
정치인 추미애

오늘, 우리는
추미애의
자전적 진심이야기를 통해
우리 정치에서
희망을 봅니다.
우리 정치가 나아갈 길을
미리 봅니다.

면수_340쪽 가격_13,000원

**추미애의
진심 복권서트
in 광주**

**12월 26일(목) 오후 2시
조선대 치과대 1층 대강당**

사회자. 노정렬

주 최. 추미애의원실
문 의. 02-784-1270

재부 국민만 봤습니다 - 전두환 군사 독재에 맞선 편사 - 800만 비정규직의 해방을 시키다(비정규직법) - 오직 국민 편에서 관철 시킨 노동법 제2부 진심을 다했습니다 - 이당총재와의 만남 - 돌을 맞더라도(조너드 유세인) - 끝까지 않은 진실에 대하여(재수 4·3) - 화려한 골목백 - 추 최고 니 좀 도와주소 - 100만 마리의 희망(재지 안마) - 추미애도 있고 정동영도 있다 제3부 끝까지 책임을 다했습니다 - 문당반대 - 행동하지 않는 비양심 - 삼보일배 - 거듭된 장관직 제의 - 판 3천 킬로의 통합 대장정 제4부 내버 안딩 스토리 - 오직 사람을 사랑한 큰 별을 그리며(김대중 대통령님께 드리는 진심) - 사회의 타이밍을 놓치고(노무현 대통령님께 드리는 진심)